

현안과 과제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배경

-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률 70%”가 화두가 되고 있음
 - 고용률 제고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 극복, 선진국으로의 도약,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생계 불안 해소에 기여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고용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2012년 기준 고용률 70% 이상인 13개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

- (국가 고용률) 한국의 고용률은 13개국 고용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 2012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13개국 평균인 73.9%를 하회
 - 또한 2004~2012년 기간 고용률 상승폭도 한국은 0.6%p, 13개국 평균 1.1%p를 기록하여 고용률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13개국 간의 고용률 격차와 1인당 GDP 격차는 연관성이 높음
 - *1인당 실질 GDP: 한국 27,991달러, 13개국 평균 35,210달러
- (노동 수요) 산업별로 한국의 11개국 대비 제조업 고용비중은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낮은 편
 - 201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6.6%로 11개국 평균(12.8%)보다 높음
 - 제조업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에는 2004~2012년 한국의 제조업이 빠르게(연평균 5.8%) 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한편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한국이 69.3%를 기록해 11개국 평균(74.6%)보다 낮으며, 다만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11개국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노동 공급) 한국은 30대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청년노동수급 불일치 등으로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2012년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로 13개국 평균(80.5%)보다 낮음
 - 가장 큰 원인은 가사·육아 부담에 따른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로 판단됨
 - 또한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 일자리 선호, 과도한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 노동수급 불일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노동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책 지원이 미흡
 - 근로자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0.33% 수준으로 12개국 평균인 0.72%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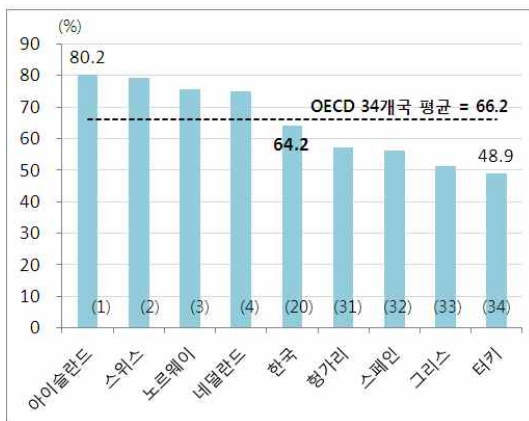
시사점

- 첫째, 고부가·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 둘째, 기업 투자 여건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 셋째, 여성 친화적 근로 여건 마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넷째,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취업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1. 연구 배경

-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률 70%”가 화두가 되고 있음
 - 고용률 제고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 극복, 선진국으로의 도약,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생계 불안 해소에 기여
 -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와 고용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고용률(15~64세)¹⁾은 2012년 기준 64.2%로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²⁾
 - 34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66.2%이며, 한국은 20위
- 이에 한국보다 앞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고용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2012년 기준 고용률 70% 이상인 국가는 13개국 :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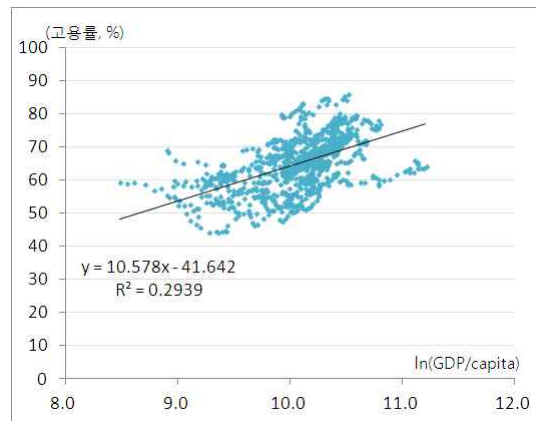
< OECD 국가 고용률 비교(2011년) >



자료: OECD

- 주: 1) 고용률은 15~64세 기준
 2) 괄호안은 34개국 중 고용률 순위
 3) OECD 평균은 개별국 산출평균(이하 동일 기준 적용)

< 1인당 GDP와 고용률 간 상관관계 >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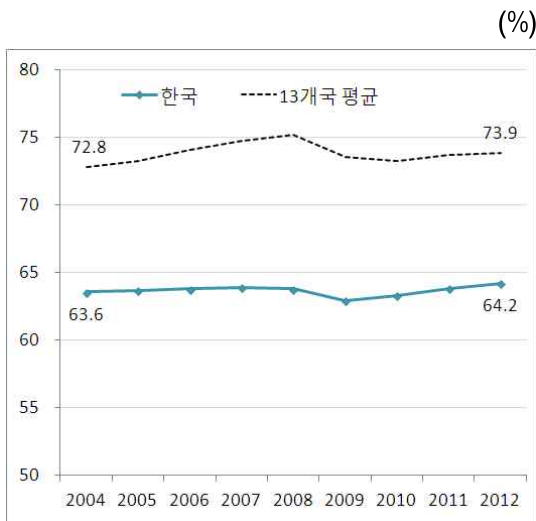
- 주: 분석기간은 통계 한계로 인해 국가별로 상이

1)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비교 시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5-64세 인구 고용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OECD의 기준을 적용.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되는 국내 공식 고용률과 차이가 있음
 2) 이준협,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5

2.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

- (국가 고용률) 한국의 고용률은 64.2%, 1인당 실질 GDP는 27,991달러로, 분석 대상 13개국 평균 고용률 73.9%, 평균 1인당 GDP 35,210달러보다 낮음
 - 2012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13개국 평균인 73.9%를 하회
 - 비교대상 선진국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0.2%)와는 16.0%p 차이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고용률은 63.6%에서 64.2%로 상승하는데 그쳐 13개국 고용률 평균 상승폭(1.1%p)에 미치지 못함
 - 같은 기간 13개국 평균 고용률은 72.8%에서 73.9%로 1.1%p 상승
 - 13개국 평균 고용률이 상승한 데에는 독일(7.8%p), 오스트리아(4.8%p), 네덜란드(4.0%p) 등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
 - 한국과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률과 1인당 GDP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존재
 -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7,991달러, 13개국 평균은 35,210달러
 - 한편 13개국 중에서도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79.4%), 노르웨이(75.8%)의 1인당 GDP는 각각 39,683달러, 47,545달러로 높은 편

< 고용률 국제 비교 >



자료: OECD

< 국가별 고용률 및 1인당 G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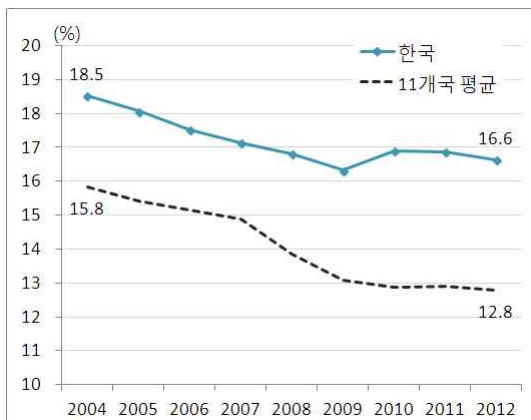
	고용률 (%)	1인당 GDP (\$실질)
한국	64.2	27,991
13개국 평균	73.9	35,210
호주	72.3	37,257
오스트리아	72.5	36,278
캐나다	72.2	35,753
덴마크	72.6	32,366
독일	72.8	34,754
아이슬란드	80.2	33,968
일본	70.6	30,761
네덜란드	75.1	36,473
뉴질랜드	72.1	25,052
노르웨이	75.8	47,545
스웨덴	73.8	35,130
스위스	79.4	39,683
영국	70.9	32,714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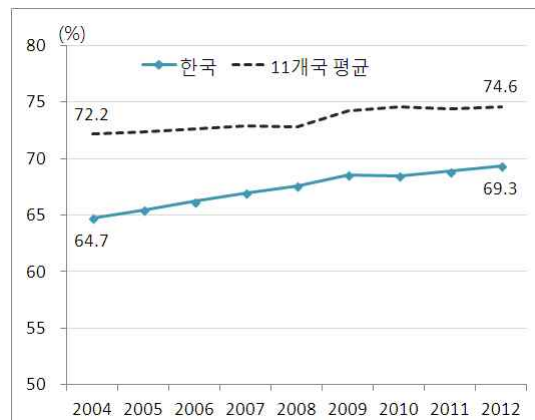
- 주: 1) 1인당 GDP는 실질 기준
- 2)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2011년 기준

- (노동 수요)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낮은 편
 -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제조업 고용비중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6.6%로 11개국³⁾ 평균인 12.8%를 상회
 - 11개국 중 제조업 고용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독일(19.9%)이 유일
 -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한국이 69.3%로 11개국 평균인 74.6%를 하회
 -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78.9%)과는 9.6%p 차이
 - 한국 및 11개국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비슷하게 관찰됨
 - 제조업: 11개국 평균 제조업 고용비중은 2004년 15.8%에서 2012년 12.8%, 한국은 18.5%에서 16.6%로 하락했으며, 한국은 제조업의 고성장(2004-2012년 연평균 5.8% 성장)덕분에 고용비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
 - 서비스업: 11개국 평균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4년 72.2%에서 2012년 74.6%로, 한국은 64.7%에서 69.3%로 상승

< 제조업 고용비중 국제비교 >



< 서비스업 고용비중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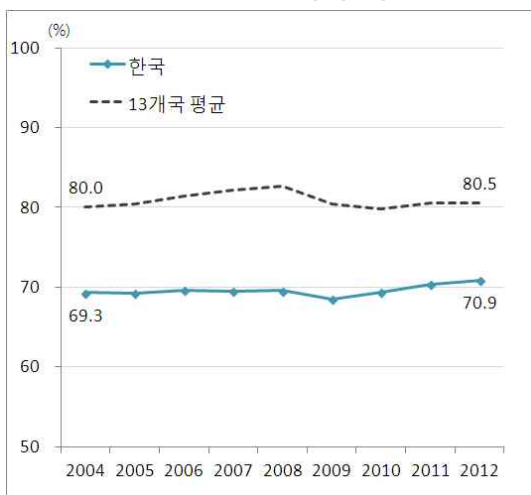
자료: Kosis, Eurostat, 일본통계청, Statistics Canada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주: 1) 고용비중은 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2) 호주, 뉴질랜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 3) 11개국 평균은 개별국의 산업별 고용비중의 산술평균
- 4) 네덜란드는 2012년 통계 부재로 2009-2011년 3개년도 평균치를 적용

3) 호주, 뉴질랜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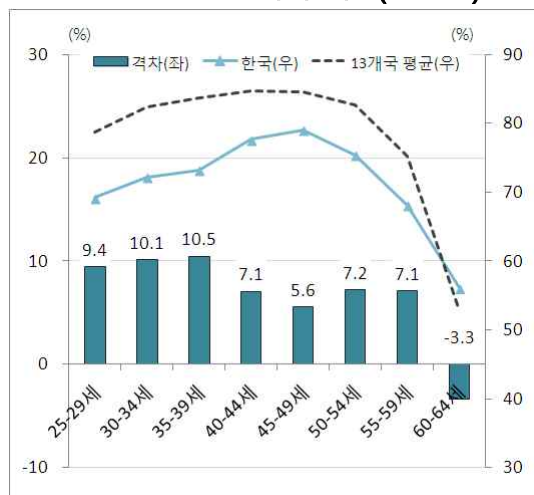
- (노동 공급)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이는 가사·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고용단절, 고학력 청년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2012년 기준 한국의 25~34세⁴⁾ 청년 고용률은 70.9%를 기록하여 13개국 평균인 80.5%를 하회
 - 25~34세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스위스(85.4%)와는 14.5%p 차이
 - 세부적으로 한국의 25-29세, 30-34세 고용률은 13개국 평균과의 차이는 9.4%p, 10.1%p로 타 연령대 대비 격차가 높은 편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1.5%p 상승하여 13개국 평균 상승폭인 0.5%p를 상회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04년 69.3%에서 2012년 70.9%로 1.5%p 상승
 - 같은 기간 13개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80.0%에서 80.5%로 0.5%p 상승
 - 하지만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25~34세 청년 고용률이 4.6%p(75.3%→79.9%), 일본은 2.4%p(77.0%→79.4%), 오스트리아는 1.6%p(82.4%→84.0%) 등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미약

< 청년 고용률 국제 비교 >



자료: OECD

< 연령별 고용률 국제 비교(2012년) >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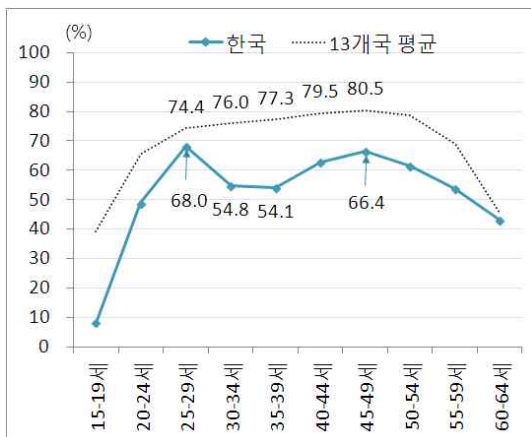
4)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20-24세 청년은 대학 재학 중인 비율이 높고 고용률이 낮아 청년 고용률 분석 대상에서 제외.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데에는 30대 여성의 고용단절, 고학력 청년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 한국에서는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짐
 -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68.0%에서 30대 초반 54.8%로 급락했다 40대 후반 66.4%를 회복하는 M자형 곡선을 보임
 - 반면 13개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74.4%에서 40대 후반 80.5%까지 지속 상승했다 하락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임
 - 한국 30대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함

*여성 고용률(2012년): 한국 53.5%, 13개국 평균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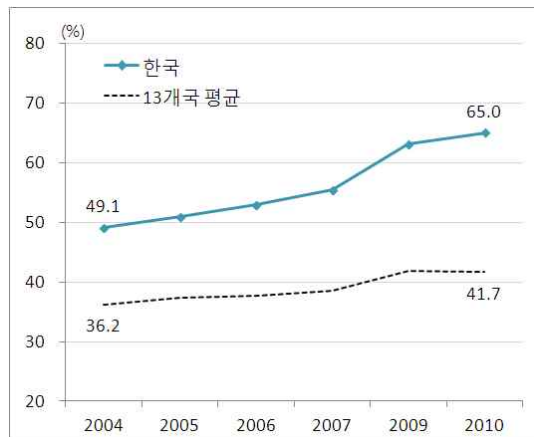
- 또한 청년 고용의 수급 불일치 및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청년들이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에 몰리면서 노동의 수급 불일치
 - 또한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양적·질적으로 불일치. 즉 대학정원이 노동시장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한 고학력화와 눈높이 차이 발생
 - 한국의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4년 49.1%에서 2010년에는 65.0%로 상승, 13개국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과의 격차가 확대

< 연령별 여성 고용률 비교(2012년) >



자료: OECD

< 25-3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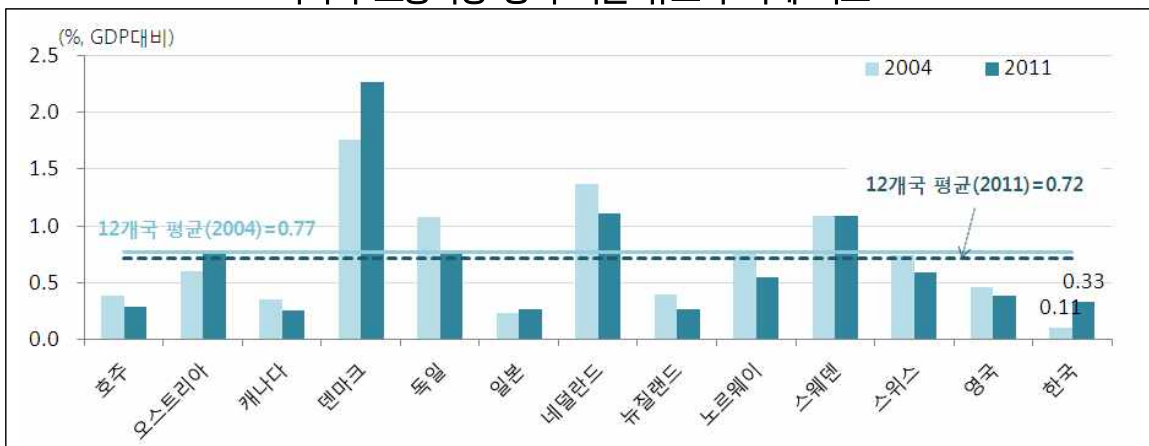
자료: OECD

-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포함
 2) 이수율은 전체 인구 대비 고등교육 학위소지자의 비율

○ (노동 정책) 한국은 12개국과 비교했을 때 노동 정책 지원이 미흡

- 각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크게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⁵⁾과 실업 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⁶⁾으로 나뉨
-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확대는 근로자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여 고용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2개국⁷⁾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GDP대비 약 0.7%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음
- 선진 12개국의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77%, 2011년 0.72%를 기록
-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11%에서 2011년 0.3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12개국 대비 낮은 수준
- 2004~2007년간 GDP의 0.1%수준이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2008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추진,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증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의 국제 비교 >



자료: OECD

- 주: 1) 아이슬란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 2) 영국은 2011년 통계 부재로 현시점에서 가장 최신(2010년) 통계를 이용
- 3) 노르웨이는 2011년 통계 부재로 현시점에서 가장 최신(2007년) 통계를 이용

5) Active labor market program, ALMP.
 6) Passive labor market program, PLMP.
 7) 아이슬란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3. 시사점

첫째, 고부가·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고령화, 국제화 시대에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이들 산업은 여성 및 청년 인구의 고용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

둘째, 기업 투자 여건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조업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
-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

셋째, 여성 친화적 근로 여건 마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여성 생애주기별 보직 배치제도 운영,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및 재택근무 확대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여성친화적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시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취업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 강화, 해외인턴 사업 확대 등으로 청년 인구의 빠른 취업을 장려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의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 취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의 합리화, 마이스터고의 활성화, 취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직업훈련의 내실화, 취업정보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구직자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함
- 또한 고용우수기업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보험보증료 할인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에 고용 유인을 제공해야함 **HRI**

전해영 선임연구원 (haloween@hri.co.kr, 02-2072-6241)

[부록] 분석대상 13개 국가별 주요 고용지표

■ 전체 고용률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63.6	63.7	63.8	63.9	63.8	62.9	63.3	63.9	64.2
선진국 평균	72.8	73.3	74.1	74.9	75.3	73.6	73.3	73.7	73.9
호주	70.3	71.5	72.2	72.9	73.2	72.0	72.4	72.7	72.3
오스트리아	67.8	68.6	70.2	71.4	72.1	71.6	71.7	72.1	72.5
캐나다	72.5	72.4	72.8	73.5	73.6	71.5	71.5	72.0	72.2
덴마크	75.7	75.9	77.4	77.0	77.9	75.3	73.3	73.1	72.6
독일	65.0	65.5	67.2	69.0	70.2	70.4	71.2	72.6	72.8
아이슬란드	82.8	84.4	85.3	85.7	84.2	78.9	78.9	79.0	80.2
일본	68.7	69.3	70.0	70.7	70.7	70.0	70.1	70.3	70.6
네덜란드	71.1	71.5	72.5	74.4	75.9	75.6	74.7	74.9	75.1
뉴질랜드	73.2	74.3	74.9	75.2	74.7	72.9	72.3	72.6	72.1
노르웨이	75.6	75.2	75.5	76.9	78.1	76.5	75.4	75.3	75.8
스웨덴	73.7	74.0	74.6	75.7	75.8	72.3	72.7	74.1	73.8
스위스	77.4	77.2	77.9	78.6	79.5	79.0	78.6	79.3	79.4
영국	72.7	72.7	72.6	72.4	72.7	70.6	70.3	70.4	70.9

자료: OECD (15-64세 기준)

■ 여성 고용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52.2	52.5	53.1	53.2	53.2	52.2	52.6	53.1	53.5
선진국 평균	67.0	67.5	68.4	69.2	69.8	69.0	68.7	69.1	69.4
호주	63.0	64.6	65.5	66.1	66.7	66.3	66.2	66.7	66.6
오스트리아	60.7	62.0	63.5	64.4	65.8	66.4	66.4	66.5	67.3
캐나다	68.3	68.2	68.8	69.9	70.1	69.0	68.8	68.9	69.2
덴마크	71.6	71.9	73.4	73.2	74.1	72.7	71.1	70.4	70.0
독일	59.2	59.6	61.4	63.2	64.3	65.2	66.1	67.7	68.0
아이슬란드	79.4	81.2	81.6	81.7	80.3	77.2	77.0	77.3	78.5
일본	57.4	58.1	58.8	59.5	59.7	59.8	60.1	60.3	60.7
네덜란드	63.5	64.1	65.4	67.5	69.3	69.6	69.4	69.9	70.4
뉴질랜드	66.1	67.6	68.2	68.7	68.7	67.4	66.7	67.2	67.0
노르웨이	72.7	72.0	72.3	74.0	75.4	74.4	73.3	73.4	73.8
스웨덴	71.8	71.8	72.1	73.2	73.2	70.2	70.3	71.9	71.8
스위스	70.3	70.4	71.1	71.6	73.5	73.6	72.5	73.2	73.6
영국	66.6	66.6	66.8	66.3	66.8	65.6	65.3	65.3	65.7

■ 청년 고용률(25-34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69.3	69.3	69.6	69.5	69.6	68.5	69.4	70.4	70.9
선진국 평균	80.0	80.4	81.4	82.2	82.7	80.5	79.8	80.5	80.5
호주	76.9	78.1	78.5	79.2	79.9	77.8	78.1	79.1	78.5
오스트리아	82.4	81.4	81.8	82.1	82.9	82.8	82.0	83.0	84.0
캐나다	80.9	81.0	81.1	81.9	81.6	79.4	79.6	79.8	80.4
덴마크	80.6	81.8	84.1	84.0	85.3	81.8	78.9	77.2	76.9
독일	75.3	72.9	74.9	76.2	76.8	76.9	77.7	79.5	79.9
아이슬란드	83.7	85.5	86.4	86.5	85.0	76.7	76.5	78.5	80.3
일본	77.0	77.3	77.9	78.6	78.7	78.2	78.8	79.0	79.4
네덜란드	83.4	83.7	85.3	86.9	88.0	87.0	86.0	85.4	84.8
뉴질랜드	76.4	78.0	78.3	79.1	79.1	76.9	75.2	77.1	76.3
노르웨이	80.6	80.8	82.9	84.2	85.5	84.8	81.9	82.4	82.0
스웨덴	79.5	80.2	81.8	83.5	83.9	81.0	80.8	81.9	80.7
스위스	83.9	84.4	84.9	85.5	87.0	85.0	84.2	85.5	85.4
영국	79.6	79.9	80.2	80.5	80.7	77.7	78.3	78.4	78.3

■ 제조업 고용비중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8.5	18.1	17.5	17.1	16.8	16.3	16.9	16.9	16.6
선진국 평균	15.8	15.4	15.2	14.9	13.9	13.1	12.9	12.9	12.8
오스트리아	18.5	18.4	19.0	18.3	15.9	15.1	15.4	15.9	16.0
캐나다	14.4	13.7	12.8	12.1	11.5	10.6	10.2	10.2	10.2
덴마크	16.0	16.2	15.4	15.8	14.8	12.8	12.7	12.8	12.5
독일	23.2	22.2	22.0	22.2	21.2	20.5	20.2	20.0	19.9
아이슬란드	14.5	13.0	11.9	10.8	10.4	11.0	10.7	11.4	11.7
일본	18.2	18.0	18.2	18.2	18.0	17.1	16.8	16.7	16.5
네덜란드	13.0	13.1	12.8	12.1	10.8	10.0	9.6	9.2	9.6
노르웨이	11.6	11.7	11.6	11.5	10.4	10.0	9.5	9.5	9.3
스웨덴	16.0	15.3	15.0	14.6	13.6	12.6	12.2	12.2	11.8
스위스	15.0	15.0	15.0	15.2	14.4	14.4	14.4	14.1	13.2
영국	13.6	13.2	12.9	12.8	11.4	9.7	9.9	9.8	9.9

자료: UN, Kosis, Eurostat, 일본통계청, Statistics Canada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주: 1) 고용비중은 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2) 호주, 뉴질랜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3) 선진국 평균은 조사대상 11개국 고용률의 산술평균
 4) 네덜란드는 2012년 통계 부재로 2009-2011년 3개년도 평균치를 적용

■ 서비스업 고용비중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64.7	65.4	66.2	66.9	67.6	68.5	68.5	68.9	69.3
선진국 평균	72.2	72.4	72.6	72.9	72.8	74.3	74.6	74.4	74.6
오스트리아	68.4	67.1	66.5	67.3	68.7	70.1	70.1	69.0	69.2
캐나다	74.9	75.1	75.8	76.3	76.5	77.8	78.1	78.0	77.9
덴마크	72.9	72.9	73.6	73.5	74.5	77.1	77.9	77.6	77.6
독일	66.4	67.8	68.0	67.8	68.8	69.5	69.9	70.0	70.1
아이슬란드	70.0	71.7	72.2	73.0	73.6	75.4	75.9	75.8	75.7
일본	67.5	68.1	68.2	68.4	68.9	69.8	70.5	70.8	71.1
네덜란드	73.1	72.6	73.2	74.9	74.2	73.0	71.9	71.7	72.2
노르웨이	75.6	75.8	75.9	75.9	74.2	77.0	77.7	77.3	77.4
스웨덴	75.2	75.7	75.7	75.9	76.3	77.5	77.9	77.8	77.9
스위스	73.6	73.4	73.2	73.1	68.3	70.9	71.2	71.4	72.8
영국	76.2	76.2	76.3	76.2	76.6	78.7	79.0	79.0	78.9